

#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 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10월 2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 끝까지 앞장선다!

### 소수노조도 노동3권을 누려야 한다

지부 산하에는 6개 사업장이 노조파괴-복수노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행 복수노조법 하에서는 조합원 숫자가 적은 소수노조는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일상적인 노조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부는 모든 노조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조할 권리'를 핵심적인 과제로 선정해 하반기 투쟁을 벌여왔다.

### 지부의 투쟁이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국에 수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소수노조로 일상 활동조차도 어려운 조건이라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하는 투쟁까지 벌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부는 7월부터 복수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선전전,

서울 민주당사 및 정부청사 상경투쟁을 벌였다. 복수노조 사업장을 넘어서 전체 지회로 확대하며 투쟁을 확장시켰다. 그 결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의 국정감사와 법안 논의를 앞두고 '노동적폐 청산 집중투쟁 주간'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었다. 어려움을 겪는 몇몇 소수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 된 것이다.

### 먼저 시작한 만큼, 끝까지 앞장서자!

지부는 그동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폐기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 움직였다. 복수노조 사업장 동지들은 개인 휴가 썰가며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도 마다않고 투쟁을 벌였다. 그 성과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됐고, 국회를 상대로 더 큰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투쟁인 만큼,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앞장서야 한다.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한 만큼, 마지막까지 절실함을 갖고 투쟁하자.

## 해고없는 연말! 누구에게도 평등한 공휴일!

연말이 다가오면 해고될까 두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 충북지역에서는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고 해고없는 연말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을 선정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단 선전전을 벌이고,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에 연대하고, 해고없는 연말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대전지역에서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캠페인을 중심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다. 대덕 산단 식당 인근에서 캠페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공단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다. 대덕 산단 곳곳에 노조할 권리 현수막도 게시하며 누구나 노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 \* 이번주 일정 \*

#### ■ 노동적폐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10/23(월) ~ 24(화) / 1박2일  
(국회, 대검, 더민주당)

10/26(목) 15:00 언론노조 힘주기 집회  
18:00 투쟁문화제 (국회 앞)

#### ■ 충북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

10/24(화) 18:00 작은문화제 (청주 행복카페)  
10/25(수) 08:00 청주공단 선전전 (심택 앞)  
18:00 해고없는 연말 캠페인  
(청주 성안길)

10/26(목) 10:30 학비연대 파업집회  
(충북교육청)

#### ■ 대전 공휴일 법제화 캠페인

10/25(수) 11:30 대덕우체국 네거리  
'사랑이네 밥상' 앞